

잇사이쿄산, 히가시아즈마산

잇사이쿄산(一切經山)

잇사이쿄산(해발 1,949m)의 동쪽에 있는 오아나 화구에서는 지금도 계속 증기와 화산가스가 유출되고 있습니다. 잇사이쿄산은 약 30 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, 현재도 화산활동이 활발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. 화산활동은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활발할 때 하이킹 코스는 폐쇄됩니다.

산 정상으로 가는 경로는 조도다이라 비지터 센터에서 시작하여 조도다이라 습원을 지나 산 정상으로 연결됩니다. 소요시간은 편도 약 90 분입니다. 이 경로는 스가다이라 습원 중간 지점부터 험해집니다. 이 지역은 트레킹 코스 대부분이 분화 퇴적물로 덮여 있어 발 디딜 곳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. 산 정상에서는 매혹적인 코발트 블루로 인기가 많은 화구호, 고시키누마 늪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 고시키누마 늪 끝에는 니시아즈마 봉우리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. 잇사이쿄산 정상을 경유하는 비지터 센터에서 고시키누마 늪까지의 소요시간은 왕복 약 4 시간입니다. 가마누마 늪과 우바가하라를 경유하여 돌아오는 경우는 1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.

이 근처에는 화산가스가 떠다니고 있지만, 일부 초목은 이런 산의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. 쯤새풀, 호장근, 들쭉나무, 시로미 등의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.

잇사이쿄산은 도호쿠 지방에서 가장 화산활동이 활발한 산으로, 작은 활동도 놓치지 않기 위해 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트레킹을 할 때는 안전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화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산가스를 흡입하지 말 것, 적절한 하이킹 용구를 가지고 갈 것, 시간 여유를 가지고 움직일 것, 일기예보를 확인할 것 등에 주의하도록 합니다.

히가시아즈마산 (東吾妻山)

히가시아즈마산(해발 1,975m)은 조도다이라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는 조도다이라 비지터 센터에서 시작해 봄부터 가을에 걸쳐 아고산성 식물과 꽃들이 자라는 가마누마 늪과 우바가하라 습원을 지납니다.

우바가하라에서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코스는 그 대부분이 구상나무(*Abies mariesii*)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. 산 정상에서는 아즈마 연봉과 반다이산, 이나와시로 호수를 포함한 우라반다이의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 날씨에 따라서는 멀리 이데산과 갓산까지도 보입니다.

비지터 센터까지는 왔던 길을 따라 돌아올 수도 있고, 게이바다이라로 이어지는 남쪽으로 가는 경로를 통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. 이 코스는 험하고 질퍽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자에게만 추천하고 싶은 경로입니다. 왕복 소요시간은 우바가하라 경유 약 3 시간, 게이바다이라 경유 약 4~5 시간입니다.